

선수로 남나, 프로전향하나

갈라쇼 마친 김연아 향후 진로 갈림길
“코치 해 보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려”

“저나 팬들이나 가장 기대하던 시즌을 잘 마무리하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분이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에 매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변함없는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극적이었던 한 시즌을 마무리한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출가분한 표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김연아는 29일(한국시각) 새벽 치러진 대회 갈라쇼를 화려하게 마무리 지은 다음 취재진과 만나 지난 시즌을 돌아보며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올림픽이 끝나고 곧장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앞으로 진로를 두고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힘들었던 세계선수권대회~끝나고 보니 잘 나온 것 같아요”=김연아는 “올림픽 이후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후회했다”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니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을 텐데 또 경기를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흔들렸다. 게다가 올림픽 챔피언인데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훈련을 대충 한 건 아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올림픽 때와 거의 비슷하게 훈련했고, 대충 해서 실수한 것

도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로는 선수를 계속하느냐, 프로 전향이나 갈림길”=김연아는 “앞으로 진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선수로 계속 뛰든지, 아니면 공연에 나서며 가능하다면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쉬다가 나온다는 계획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그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반복한 선수들도 당시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 다시 마음이 생긴 것”이라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연아는 ‘실력 유지’와 ‘스트레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선수 생활을 더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지금의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일 것 같아요. 아니라면 경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는 하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김연아는 또 “곽민정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연습을 했는데,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그런 것을 보면 코치를 해 보고 싶기도 하다. 주변에서는 말리지만, 보조코치처럼 도와주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또 “곽민정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연습을 했는데, 알려주고 싶은 게

“코치 해 보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려”

“코치 해 보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려”



블로킹 벽을 넘어 29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제2회 SK 핸드볼 슈퍼리그 여자일반부 부산시설관공단과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경기에서 경남 정지희(왼쪽에서 세번째)가 상대 수비를 뚫고 강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육·성철 ‘쌍둥이’ 맹활약 조선태 핸드볼 4강

중고배구연맹전 남성고에 1-3 패 노재욱·진성태 2선수권 대표 선발

광주전자공고가 2010년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광주전자공고는 29일 전북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결승에서 강호 남성고에 세트스코어 1대3(21-25, 26-24, 17-25, 27-29)으로 패해 3년만에 노렸던 대회 정상 탈환의 꿈을 접고 말았다. 이날 경기에서 초반 조직력을 앞세워 선전을 펼쳤던 광주전자공고는 후반들어 체력 저하로 남성고의 파워를 막아내지 못하고

주도권을 빼앗긴게 패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날 3세트까지 1-2로 뒤지던 광주전자공고가 4세트 들어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승부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가려했으나 아쉽게 27-29로 무너지고 말았다. 조별 예선에서 3승을 거둬 조 1위로 본선에 오른 광주전자공고는 8강전에서 동해광희고를 3-0, 준결승에서 육천고를 3-1로 각각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전자공고 세트 노재욱과 센터 진성태(이상 3년)는 오는 5월13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U-17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며, 김필모 감독은 대표팀 코치로 선정되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태가 제3회 연맹회장기전국대학생 핸드볼대회 4강에 올랐다. 조선태는 29일 강원도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조별 예선 3차전에서 남성육(센터)·성철(골키퍼·이상 4년) 쌍둥이 형제의 맹활약에 힘입어 강호 한체대를 19-16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경기에서 남성육은 강한 체력을 앞세워 혼자서 5골을 성공시켰으며, 남성철은 막판 추격전을 펼친 한체대의 슬픈 공격을 막아내 팀 승리를 이끌었다. 조선태는 31일 원광대와 대회 결승티켓을 놓고 한관승부를 펼친다. 한편 조선태는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충남대를 36-25, 2차전에서 강원대를 29-18로 각각 제압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연아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오서 코치 밝혀

“김연아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어야 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서 코치는 29일(한국시각)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갈라쇼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서 코치는 “김연아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아이스쇼 등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든 만큼, 앞으로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김연아는 앞으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서 코치는 “김연아는 학업에 열중할 수도 있으며 아이스쇼 무대에만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고 싶지 않다”며 김연아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택품 NAVER 주소(대산프리모) SBS·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판 50만원~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 채 011-600-9955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E-mail: daesangabal.co.k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 치 ●

화순읍 전대평원면산부근 광주에서 10로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로로 전대평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안전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 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입니다. 향토 주택들 100년 사용하고 속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만능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면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정성 들여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지)

매매가: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250평 * 건평: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용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심아전기
- 조경: 잔디, 소나무
- 건축 준공: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고아 슬라브, 현관 전동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 인테리어 휴양도 벽돌, 휴양도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술품
- 2층 방가투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목 시공)

◎ 주민직거래 ◎
꼭하시분만전화요망
☎011-634-4114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당(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면적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양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류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 창고부지 최적지

무인텔 매각공고

◆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